

월요논단



김 태 일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위성곤 도정이 출발한 지 2개월이 지나간다. 지난 도정의 정책 재평가 를 토대로 위 지사의 비전을 담은 공약에 대해 다양한 시선과 기대가 존재한다. 위 도정은 핵심 공약으로 ‘제주 AX 대전환’과 ‘에너지 주권’, 그리고 ‘민생경제회복’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공약이나 세부공약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직면한 현실의 문제와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내용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기후·에너지문제에 경우 공학기술적 접근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하다.

위 도정에 바라는 도시건축 정책

기후·에너지 공약을 구현하고 실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도시와 건축 영역에서의 접근이 오히려 과급효과가 크다. 좁게 보면 에너지문제에 관해선 주택부문에서의 에너지소비와 탄소배출이 크기 때문에 건축설계에서부터 시공, 관리에 이르기까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넓게는 녹색도시와 직결돼 한라산-중산간-하천 생태관리와 연계되고 도시의 경관과 주민생활공간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에너지 문제는 좀 더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례와 정책이 각 부서별로 산발적이고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집행예산이 적절한지, 정책의 정교함과 연계성·체계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과 점검을 토대로, 과거처럼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하는 방식보다는 자원을 집중하고 활용하는 방식, 구체적으로는 제주형 블루그린그리드를 통한 공간재편, 지역기반의 돌봄 체계를 위한 서비스공간의 재편, 공간재편과 연계된 산업 생태계 조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를 주도할 총괄건축가제도를 행정조직 내에 체계화하고 적극 운영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위 도정 초기에 정리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오염원 도정 때 서둘러 추진한 고도안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고충완화 변경신청이 이뤄지고 있고 언젠가는 읍면지역까지 고층건축물이 들어설 가능성도 높다. 위 도정에서 이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축계에서는 서귀포관광극장 철거논쟁도 큰 이슈다. 단순한 건축물 철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중섬미술관의 위상과 기능에 관련된 문제이자 지역주민의 오랜 기억과 직결된 문제다. 게다가 최근의 탐동해변공연장 철거문제 역시 지역사회의 이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임에도 원도심과 신항을 연결하는 재생 프로그램,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는다. 25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불확실한 프로그램으로 포장된 사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건축계는 서귀포관광극장과 탐동해변공연장과 같은 사업의 추진 과정과 개발방식을 위 도정의 도시와 건축에 대한 철학의 시험대로서 주시하고 있다. 4년이라는 도민과의 약속기간이 있는 만큼 공약의 실행가능성과 보완, 제주미래와 관련된 도시·건축의 현안 해결을 기대해 본다.

사설

제주도 기금 운용 부실… 내실 기해야

제주도가 운용하는 각종 기금은 특정 목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성됐다. 일반회계와는 별개다. 그런데 일부 기금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제주도 결산감사위원회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25 회계연도 결산감사의견서’에 따르면 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기금 가운데 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한 기금은 농어업경영안정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파악됐다. 농어업경영안정기금은 113억7900만원의 예산 중 77억 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67%에 그쳤다. 식품진흥기금은 10억4500만원 중 5억8600만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56%로 집계됐다. 특히

식품진흥기금의 통계목별 집행률의 경우 기타반환금, 민간자본사업보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아예 한 톨도 집행되지 않았다. 게다가 집행률이 저조한 기금 가운데 개별 사업별 로도 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거나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결산감사위원회는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된 기금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조성된 기금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금 관리의 부실을 방증한다. 전액 미집행된 기금은 원만 집행해 집행률이 67%에 그쳤다. 식품진흥기금은 10억4500만원 중 5억8600만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56%로 집계됐다. 특히

항공좌석난, 이번엔 제대로 된 대책 내놔야

제주를 오가는 항공권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주말과 성수기는 물론 평일에도 원하는 시간대의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거나 비싼 요금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적지 않다.

관광객에게는 제주 접근성의 문제이지만 도민에게 항공편은 사실상의 대중교통이자 필수 교통수단이다. 항공좌석난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 7월 제주공항 국내선 운항 항공기(출·도착)는 1만2942편, 공급 좌석은 241만9308석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1만3252편·253만4055석)과 비교하면 운항 편수는 2.3%(310편), 공급 좌석은 4.5%(11만4747석) 각각 감소했다. 하루 평균 약 3700석 가량이 사라진 셈이다.

항공사들의 국제선 확대와 투입 기종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지난 20일 민·관·학과 항공업계가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본격 가동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전담팀은 항공 수요와 좌석 공급 여건을 점검하고 도민의 안정적인 항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항공사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제주공항 수용 여건과 동계 좌석공급 전망, 항공요금 등 주요 현안을 차례로 점검하고,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문제는 실효성이 다. 전담팀은 항공사별 운항편과 공급 좌석, 투입 기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좌석 공급 확대를 끌어내야 한다. 정부도 제주 노선의 공공성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제주에서 항공교통은 도민의 일상을 연결하는 생명선이다. 안정적인 항공 이동권 확보를 더 이상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열린마당

우리 아이 돌봄, 어떤 사업이 좋을까?



장 승 진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맞벌이나 바쁜 일상 속에서 양육공백으로 인한 자녀 돌봄은 오늘날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서귀포시는 이러한 양육 부담을 덜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손주돌봄수당’과 ‘아이돌봄서비스’라는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두 사업은 돌봄의 주체와 대상, 지원 기준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두 사업은 중복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각 가정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사업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은 (외)조부모가 직접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수당을 조부모에게 지원한다. 단, 1일 4시간 한도로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전문 양성 교육을 받은 아이돌봄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까지 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한 기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양육공백 기준을 ‘손주돌봄수당’에도 그대로 적용해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도 청년 취업지원 업종 대폭 확대

숙박업·운수업 등 추가

상하수도 요금 체납 집중정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을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지침을 개정해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에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를 지원.

지침 개정에 따라 9월 1일부터 그간 신청할 수 없었던 음식점업과 숙박업, 음식료품 위주의 소매업, 운수업과 금융·보험업까지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으며 3월 이후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9월 추가 모집을 통해 신규 참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됨.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더 많은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여력을 갖추게 됐다”며 “청년들이 더 다양한 환경에서 일할 기회를 얻도록 고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

오소범기자

○…제주시의 지난 7월말 기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규모가 1만4797건·32억9000여 만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이들 체납액에 대한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할 예정.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방문 독려와 전화 독촉, 예고장 발부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재정 확립에 힘쓸 방침.

시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징수처분)와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하수도 사용 가구 모두가 자진 사용료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백규탁기자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공고

- 피상속인 : 망 손성욱(1972. 08. 17. 생)
- 최후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성로 110, 308동 303호 (도원이동, 제주삼화에이치3단지)

상기자는 2026년 5월 18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6년 8월 18일 제주지방법원 2026나단362호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 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물로3길 20, 1층 (이도이동)

2026. 8. 24.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손성미(상속포기자) 손동우, 손동건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이태민(1982. 01. 15. 생)
- 최후주소 : 제주시 용화로5길 7, 가동 506호 (용담이동, 영보맨션)

상기자는 2026년 6월 1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6년 8월 18일 제주지방법원 2026나단5459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 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제주시 황사명길 120-4(화북이동)

2026. 8. 24.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이가윤

법정대리인(친권자) 문정현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동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 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 나 장 의 사

616-08-85402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박민(1955. 03. 06. 생)
- 최후주소 : 제주시 은남4길 16-1, 301호(연동, 삼일주택)

상기자는 2026년 5월 18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6년 8월 18일 제주지방법원 2026나단5412호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 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제주시 은남4길 16-1, 301호(연동, 삼일주택)

2026. 8. 24.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권준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 레 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82-3644**

010-4690-3636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안에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